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유적』에 대한 리뷰

정병삼(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앙아시아에서 크게 번영했고 이내 중국에 전래되어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초 사상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중국을 통해 삼국시대부터 불교를 이해한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중국에 직접 가서 불교를 전해오기도 했고 나아가 불교의 발상지 인도에 가서 전적을 구해 오고 불교 유적을 살펴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에 갔던 구법승(求法僧)들은 불교사상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불경의 원전을 구하고 불교 유적 순례를 떠난 동아시아의 불교 승려들을 구법승이라고 한다.

구법승들이 긴 여정에서 지났던 여러 나라의 문화와 문물은 동서교류사적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불교미술사 전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인도 방문이 경전과 불상·불구 등의 수입을 비롯한 문화교류의 의미를 지녔고, 이는 본국의 불교문화 진전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의 불교 유적에 대한 조사는 유적 형성 당시의 인도불교와 불교미술을 이해하는 데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불교미술 이해에도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 유적』은 이 구법승과 관련된 문헌 기록을 분석하고 인도의 불교 유적을 장기간 답사하여 분석 정리한 구법승과 인도 불교유적의 종합 연구서이다.

이 책은 이주형 등 8인이 3년 동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동일한 제목의 연구 프로젝트 성과물이다. 인도 불교유적에 대한 상세한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인도 불교미술에 대한 기반 지식을 구축하고자 했던 이 연구는, 인도를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견문을 기록했고 불교문물을 전래하였으며 인도 조형물에 대한 지견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구법승들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 계획에 따라 중인도·동인도·남인도·스리랑가의 불교 유적을 답사하고 박물관의 소장 유물을 조사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진은 불교미술 전문가가 중심을 이루지만 불교사상과 역사 전문가가 포함되어 다방면의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로 3부로 구성된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부 동아시아 승려의 인도 구법행

I. 인도로 간 구법승

II. 구법승과 동아시아 불교(1)

III. 구법승과 동아시아 불교(2): 현장

IV. 구법승 왕래기의 인도 불교(1): 소송과 대승

V. 구법승 왕래기의 인도 불교(2): 부파불교와 정량부

VI. 구법승 왕래기의 인도 불교(3): 구법승 기록의 인도 불교가

2부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 유적

I. 마투라

II. 사르나트

III. 보드가야(1): 불교 유적

IV. 보드가야(2): 마하보리사 출토 한자 비문

V. 날란다

VI. 중인도의 불교 성지

VII. 안드라

VIII. 타밀나두

IX. 스리랑카(아누라다푸라)

3부 구법승 관련자료

I. 구법행 관련 문헌

II. 구법인 일람

III. 문헌별 구법승 행적

IV. 구법승 기록에 나오는 불교 유적, 유물

참고문헌

도판목록

색인

지도

전체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각 부마다 특색 있는 중요한 성과를 담고 있다.

1. 동아시아 승려의 인도 구법행

1부 ‘동아시아 승려의 인도 구법행’에서는 현장의 『대당서역기』나 의정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 등 문헌 자료에 등장하는 인도 구법승을 총정리하였다. 그 결과 이름이 알려진 사람을 165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695인으로 추정하였다. 이름이 알려진 165인 중에는 7세기의 구법승이 65명이 있어 가장 활발한 구법을 보여주며 이어 5세기에 38인이 찾아진다. 문헌에서는 160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고승전』의 40인과 『대당서역구법고승전』의 55인이 대표적이다. 이름이 알려

진 170인의 구법인 중 147인이 인도를 목표로 길을 떠났으나 12인이 도중에 병사하거나 해난을 당해 입적했고 18인은 중도에 돌아갔으며 110인만이 인도에 이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5세기 전반의 지맹(智猛) 일행은 모두 15명이 출발했는데 5명이 인도에 도착했고 다시 중국에 돌아온 이는 2명밖에 없었다. 같은 시기에 인도행을 기도한 담무갈(曇無竭) 일행은 25명 중 히말라야를 넘다 12명이 입적했고 끝까지 마치고 돌아온 이는 오직 담무갈 한 사람 뿐이었다. 구법인들의 인도행은 이처럼 험난한 길이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왕현책(王玄策)이 4회나 인도에 가는 등 2회 이상 간 사람도 5인이었다. 인도에 간 110인 중에서 19인은 인도에서 혹은 귀로에서 입적했고 68인이 중국으로 귀환했으며 나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름을 남긴 이들이 생환한 사람들임을 감안하면 실제 생환율은 이보다 훨씬 낮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에는 이들 구법인들의 인도로 가는 길에 대한 분석이 뒤따른다. 길은 육로와 해로가 있었고 육로는 타림분지에서 타쉬쿠르간, 호탄에서 카슈미르, 천산북로, 티베트-네팔로, 사천과 운남을 거쳐 버마를 지나는 길 등 다섯 가지가 있어 모두 여섯 가지 통로가 활용되었다. 인도 왕래를 시도한 197회 가운데 북도를 118회, 티베트-네팔로를 13회, 사천-운남로를 2회, 해로를 63회 이용하였다. 북도는 갈 때 69회, 올 때 49회 이용했지만, 해로는 갈 때 이용한 횟수가 50회로 압도적으로 많다. 북도의 이용은 시기적으로 고른 편이나 티베트로와 해로는 7세기에 집중된 특징이 있다.

구법인들이 방문한 곳에 대한 분석에서는 5세기에는 서북부의 간다라와 나가라할 및 웃디아나와 카슈미르가 많고 7세기에는 갠지스 강 중하류 지역에 집중되어 보드가야와 날란다 그리고 스리랑카가 주요 지역이었다고 밝혔다. 구법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불교였지

만 불사리와 불상 그림도 귀국길에 전해 왔고, 이들 상은 인도나 중앙 아시아 출신의 傳法僧들이 가져온 것과 함께 동아시아 불교 조형 활동의 새로운 자국이 되었다고 보았다. 구법들의 출신지가 알려진 92인 가운데 우리나라 출신은 고구려 1인, 백제 1인, 신라 12인이 있어 16%를 차지하는 큰 비중이었다고 해석하였다.

구법승과 동아시아 불교에 관해서는 법현(法顯)과 의정(義淨) 및 혜초(慧超)도 소개했지만 현장(玄奘)을 집중 분석하여 구법승의 존재가 동아시아 불교가 인도 불교의 일방적인 전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필요성 의해 인도 불교를 능동적이며 선택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었고 그중 가장 두드러진 구법인이 현장이었음을 밝혔다.

구법승들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인도 불교는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이해하던 것과는 달리 대승불교 흥기 이후 대승 일색으로 나아가지 않고 기존의 부파불교가 여전히 불교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대승과 소승이 서로 이웃하여 공존하고 생활상의 차이가 크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부파 중에서도 현장이나 의정의 기록을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되는 정량부(正量部)에 대해 『대당서역기』와 『남해기귀내법전』에 보이는 정량부의 기술을 분석하고 정량부의 실체와 교의 및 불교사적 위상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덧붙였다.

2.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 유적

2부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 유적’은 문헌들에 언급된 불교 유적지인 마투라, 사르나트, 보드가야, 날란다, 중인도의 상카시아·취라바스티·룸비니와 카필라바스투·쿠시나가라·바이샬리·라자그르하·코삼비, 안드라, 타밀나두의 칸치푸람·나가파티남·탄조르, 스리랑카의 이누다라푸라를 상세하게 살폈다. 전체 본문의 절반을 넘는 이 연

구의 가장 핵심적인 결과물이다. 불교 초기 중심 지역인 중인도 유적을 망라하였는데 특히 동남부의 안드라와 타밀나두 그리고 스리랑카 지역에 대한 조사 성과는 본격적으로 소개되기는 처음이 아닌가 한다. 다만 중부 서쪽 지역의 석굴 지대와 파키스탄의 간다라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이루어진다면 인도 전 불교 유적에 대한 자료가 종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매 유적지마다 현지답사 결과와 법현과 현장의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의 유적 상황과 연계하여 현장감 있는 서술을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불상을 중심으로 불교 유적에 대해 상세한 해설과 사진을 곁들인 서술은 현장 조사를 통해서만 만들어 낼 수 있는 성과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내놓은 결과물이자 국외에서도 찾기 드문 연구 의미 있는 성과로 생각된다.

이중에서 인도 불교 유적지에 건립된 10점의 한자 비석 중 마하보리사에 건립된 5기의 한자 비석을 분석한 것이 이채롭다. 10세기 중반에 중국대륙을 재통일한 송은 불교사절단을 서역과 인도에 파견하여 송조의 위엄을 천하에 과시하고자 하였다. 북송에서 파견한 불교사절단이 세운 이 비들은 이 시기 인도행의 목적이 구법보다 성지순례와 탐비 건립을 중시하였고 참배 대상으로 보리수나 성도상보다 금강좌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며 또 석가신앙보다는 미륵신앙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

제2부는 유적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많은 사진 자료를 제시하여 이 책이 갖는 가장 큰 공헌을 보여준 부분이다. 각 지역에 관한 구법승들의 기록을 모두 조사하고 번역하였다고 하는데, 지면의 제한으로 이 책에는 연구 성과를 모두 실지 못하였다고 한다. 방대한 현장 조사 결과와 문헌 분석이 더해진 후속 성과물의 간행이 기대된다.

3. 구법승 관련 자료

3부 ‘구법승 관련자료’는 구법행 관련 문헌과 구법승 일람 등을 표로 정리했다. 『법현전(法顯傳)』을 비롯한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傳)』·『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 등 20종의 구법행 관련 문헌 자료를 찬자, 연대, 현존 유무, 전거와 간단한 해제, 연구 성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첫 번째 구법인 관련 문헌은 『법현전』을 비롯하여 『출삼장기집』과 『고승전』에 나오는 외국전(外國傳), 『낙양가람기』에 인용된 혜생행기(惠生行記)와 송운가기(宋雲家記), 『송운행기』, 『대당서역기』, 『대당자은사삼장법사전』, 『남해기귀내법전』, 『대당서역구법고승전』, 『왕오천축국전』과 『오공입축기(悟空入竺記)』 등 20종의 문헌을 서명, 이명, 찬자, 연대, 권수, 현존 유무, 비교, 원전 참조, 번역 및 연구의 항목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표는 이 분야 연구의 기초적인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구법인 일람은 구법인 171명을 이름과 이명, 생몰년, 출신지, 여행 연대, 여행로, 경유 방문지, 전거와 비교의 간단한 해설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가나다순 색인을 첨부하였다. 구법승들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는 초석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된다. 비교에 수록한 간략한 내용 설명은 매우 유익한 길잡이 자료이다.

세 번째 문헌별 구법승 행적은 『법현전』, 『송운행기』, 『대당서역기』, 『대당서역구법고승전』, 『왕오천축국전』에 등장하는 구법승의 행적에 대해 국명이나 지역명, 인도어명, 이명, 현재 지명 및 위치, 세부 지명, 불교 교세 및 불교사원, 비교 항목으로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부록 중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내용으로서, 역시 구법의 지역적 탐구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 구법승 기록에 나오는 불교 유적과 유물은 『법현전』, 『송운행기』, 『대당서역기』, 『왕오천축국전』에 나오는 유적과 유물을 선별하여 국명과 세부 지명, 스투파, 사원, 像(종류와 수량), 기타 유적과 유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인도의 불교 유적과 유물을 기록한 자료를 요령 있게 정리하여 구법 기록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게 한다. 이 작업이 문헌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현지 불교유적과 유물을 조사하여 종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그 구체적인 조사 성과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특히 『대당서역기』의 자료 분석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참고문헌 또한 매우 충실하게 제시하여 연관 연구의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을 비롯하여 국내 연구문헌은 물론 일본과 중국의 문헌 그리고 영문 문헌을 방대하게 조사 수록하였다. 마지막에 실은 법현과 현장의 구법 행로 지도는 일본의 연구 성과를 원용하여 제시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부록적 성격의 3부 지면은 구법승들의 기록에 나타난 행로와 당시 인도와 서역 불교의 현황 그리고 주요 불교미술 작품들에 대한 정보를 700여 항목으로 정리하여 구법 기록을 성격에 따라 한눈에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용한 자료집의 의미를 갖는다. 연구진의 치밀한 연구 자세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또한 이 부분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때 그 의의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하여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유적』은 총 585쪽에 이르는 반대한 내용을 담은 책으로 출간되었다. 중국을 비롯한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구법승들이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다녀와서 동아시아 문화 전개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현장 조사는 물론 문헌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당대의 문화적 의의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문화적 교류 관계와 문화 비교의 의미를 갖는 것에 비추어 보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다행히 이 연구가 이에 대한 충실한 기초 성과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 연구사적 의미가 크다 하겠다. 다만 연구진이 밝힌 대로 이미 시행한 방대한 현장 조사 자료를 문헌 분석과 한데 묶어 차례로 발표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 성과로 남게 될 것이다.

4. 또 다른 연구들

인도 구법승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간다라 지역 미술 연구와 한국의 중국 구법승들에 대한 탐구 그리고 한중(韓中) 불교교류(佛敎交流)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한국 구법승들의 중국내 활동에 관한 연구팀, 『한중 불교문화 교류사 자료집』 전5권, 2004

鄭柄朝, 「구법승 연구의 의의와 과제」, 『불교연구』 23, 2005

金相鉉, 「7·8세기 海東求法僧들의 중국에서의 活動과 意義」, 『불교연구』 23, 2005

문무왕, 「신라승려들의 구법경로 연구」, 『불교연구』 22, 2005

문무왕, 「한국구법승들의 활동지역에 관한 연구」, 『불교연구』 27, 2007

權愍永, 「三國時代 新羅 求法僧의 活動과 役割」, 『청계사학』 4, 1987

呂聖九, 「新羅 中代の 入唐求法僧 研究」, 국민대 박사논문, 1998

문명대, 『실크로드 학술기행 中國大陸의 文化』, 1990 전5권

문명대, 『실크로드의 문화』, 1993 전6권

문명대 외, 간다라 지역 박물관의 불상조각 연구, 『강좌미술사』 21, 2003

문명대 외, 간다라의 사원구조와 불상의 유파/새로운 연구과제, 『강좌미술사』 23, 2004

문명대 외, 간다라 미술의 교류 연구, 『강좌미술사』 25, 2005

桑山正進, 『慧超往五天竺國傳研究』,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1992

가산불교문화연구원, 『世界精神을 탐험한 위대한 한국인 慧超』, 1999
정수일,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학고재, 2004

5권의 『한중 불교문화 교류사 자료집』은 한국불교연구원에서는 3개년 프로젝트로 한국과 중국의 불교 교류를 중국내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 성과의 하나로 그동안의 이 분야에 관한 연구 성과를 망라한 충실한 자료집이다. 제1권에 연구 경향과 같은 총론에서부터 唐 이전까지, 제2권에 당대, 제3권에 당대와 宋元 이후, 제4권에 불적기행과 기고문, 제5권에 보유편 자료를 수록하였는데,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등 전 연구성과를 망라하여 권당 500쪽에서 1000쪽이 넘는 방대한 양의 자료집으로 편집하였다. 문헌 연구와 현장 조사를 병행 실시한 이 연구의 성과는 중국에서 개최된 연구발표회를 통해 발표되었고 개별적인 논문으로 학회지에 수록되어 공간되었다. 연구의 총론적인 정병조와 김상현의 논고는 신라 구법승들의 활동과 구법승의 의의 및 과제에 대해 큰 틀에서의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문무왕을 비롯한 참여 연구자들의 성과는 지속적인 논고로 발표되어 신라 구법승들의 구체적인 구법 경로와 활동 지역 등을 분석하였다.

이에 앞서 여성구는 신라 입당 구법승을 신라에 돌아와서 활동한 혜통(惠通)·원표(元表)·신행(神行), 중국에서 활동한 무루(無漏)·지장(地藏)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하여 그 역할과 성격을 살핀 논문으로서 신라 구법승의 불교사적 의미를 집중 분석한 논고이다. 권덕영의 논문은 삼국시대 구법승의 활동에 대해 살핀 글이다. 『실크로드 학술기행』은 동국대학교 연구단이 실크로드 중국 지역을 답사하고 도판을 위주로 자료집 성격의 전집을 출판해낸 것이다. 문명대 교수가 감수하여 제1권 고도(古都) 서안(西安), 제2권 난주(蘭州) 천수(天水), 제3권 하서회랑(河西回廊) 둔황(敦煌), 제4권 서역(西域) 천산남로(天山南

路), 제5권 운강석굴(雲岡石窟)로 이루어진 것으로 구법로인 실크로드 연구 초기에 실지의 자료를 제공했던 의의가 있다. 역시 문명대 교수가 감수하여 1993에는 『실크로드의 문화』 시리즈로 제1권 태원(太原) 천룡산석굴(天龍山石窟), 제2권 오대산(五臺山), 제3권 낙양(洛陽) 용문(龍門) 공현석굴(鞏縣石窟), 제4권 서역남로(西域南路) 1, 제5권 서역남로(西域南路) 2, 제6권 초원로(草原路)의 전집이 출간되었다. 1990년의 자료집을 보완하는 실크로드자료집이다.

간다라 미술의 교류에 대한 연구는 문명대 교수를 비롯한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들이 3년간에 걸쳐 시행한 성과가 있다. 이 연구는 2003년에 간다라 불상론(문명대), 페샤와르(박도화), 탁실라(김영애), 스와트(임영애), 디르(유근자), 라호르(고정은) 박물관의 불상조각에 대해 기초 조사를 시행하였고, 여기에 간다라 고행상의 도상 특징(주수완)과 간다라 불의의 형식(이순자)을 더해 간다라 각 지역 불상의 유물 현황과 특징, 양식적 특징, 한국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어 이듬해에는 간다라의 사원구조와 불상의 유파를 주제로 카니시카탐 사리기 금동삼존불상과 간다라불상의 기원 문제(문명대), 탁티바히 사원구조와 불상 조각(박도화), 달마라지카 사원구조와 불상조각(김영애), 시크리 사원구조와 불상조각(고정은), 스와트 니모그람 사원구조와 불상조각(임영애), 디르 찻파트 사원구조와 불상조각(유근자), 그리고 간다라 불상조각의 새로운 연구과제를 주제로 간다라 불상조각 연구의 과제(문명대), 간다라 초기 불상의 여러 양상(미야지 아키라), 간다라 미술과 아프가니스탄 미술(뵈에르 깡봉), 지난 왈리 데리 사원구조와 불교미술(무함마드 이슈라프칸), 스와트 나지그람 사원구조와 불교미술(압둘 나시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 간다라 미술의 교류 연구로 간다라 아육왕조상식 불상의 교류 연구-조울리안 사원지 불상과 사천아육왕조상불상을 중심으로-(문명대), 간다

라미술에 나타난 헬레니즘(박도화), 간다라와 마투라의 불전부조도 교류관계 연구(고정은), 간다라 범천권청 불전 도상의 지역별 비교 연구(유근자), 간다라 방형기단 불탑의 일고찰(손신영), 꽃줄과 동자를 통해 본 간다라와 서역의 교류 관계(임영애), 간다라 불상과 중국 불상의 관계 비교-오호십륙국시기 불상을 중심으로-(양은경), 조율리안 2 사원지 발굴 보고(문명대)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여 3년 동안의 지속적인 간다라 미술 연구를 진행하였다.

『慧超往五天竺國傳研究』는 18명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이 5년 동안 강독회를 열어 연구한 본격적인 연구서이다. 이들은 3년 동안 『대당자은사삼장법사전』을 강독하며 준비 기간을 갖고 나서 본격적인 강독에 들어갈 만큼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종교, 언어, 고고 등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왕오천축국전』을 중심으로 한 8세기 안도와 중앙아시아의 방대한 문화적 상황을 엮어낼 수 있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충실한 각주는 당시 중앙아시아의 역사적 상황과 문화 양상을 가장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성과로서 이 분야 연구의 지침이 되는 자료이다.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16점의 지도 또한 독자적인 성과물이다.

『世界精神을 탐험한 위대한 한국인 慧超』는 혜초와 『왕오천축국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기획 자료집이다. 기조 논문인 이지관(李智冠)의 세계정신을 탐험한 위대한 한국인 혜초와 주제 논문인 정병삼(鄭炳三)의 혜초와 8세기 신라불교, 김상영(金相永)의 혜초의 구법여정(求法旅程)과 『왕오천축국전』의 가치, 여성구(呂聖九)의 입당구법승(入唐求法僧)과 입축구법승(入竺求法僧)의 세 논문이 수록되어 8세기 신라와 당과 인도의 구법 활동, 혜초의 구법 활동의 내용과 경로 등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 논문에 이어 왕오천축국전의 원본과 원문 및 번역문을 수록하여 이에 대한 관심도 드높였다. 『혜초의 왕오천

축국전』은 동서 문화교류 연구에 탁월한 식견과 업적을 낸 저자가 국내외 연구성과를 아주 꼼꼼하게 검토하고 왕오천축국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내놓은 역주서로서 『왕오천축국전』에 대한 국내의 체계적인 첫 연구서이다.

이런 연구 성과들과 비교할 때 인도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문헌과 현장 유적 조사를 병행하여 이를 유기적으로 분석한 전문적인 연구 성과라는 점에서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 유적』은 수준 높은 연구서이자 이 분야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지침서로서의 의미도 큰 책이다.

